

# 대법원 2017도13683

##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동원)은 2018. 12. 27. 피고인 김형준(전 부장검사)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 김형준이 중·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○○으로부터 약 99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, 계좌로 송금 받은 1,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김형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도13683 판결)

### 1. 사안의 내용

#### ■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 김형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,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,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,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,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으로 근무하였음
- 피고인 김형준은 중·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○○으로부터 '수감생활 중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'이자 '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나 수감생활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제공과 다른 검사 및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' 명목으로, 2012년 및 2015~2016년 합계 17,278,900원 상당의 향응 및 3,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음
- 이로써 피고인 김형준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

하여 뇌물을 수수하고, 피고인 김○○은 뇌물을 공여하였음

■ 원심의 판단

- 일부 유죄(합계 9,989,700원 상당의 향응 제공 부분) / 일부 무죄(나머지 향응 제공 및 금품 수수 부분)
- 피고인 김형준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벌금 1,500만 원, 추징금 9,989,700원
- 피고인 김○○ : 벌금 1,000만 원

■ 원심의 판단이유

- 피고인 김○○이 피고인 김형준에게 제공한 향응은 ❶ 피고인 김형준이 그 당시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에 대한 대가 및 ❷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등과 관련된 다른 검사나 검찰 직원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음
- 피고인 김형준이 피고인 김○○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1,500만원은, 피고인 김형준이 이를 피고인 김○○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
■ 피고인 김형준과 검사만 상고함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상고의 요지

■ 피고인 김형준

-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님
-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함

■ 검사

- 피고인 김형준이 계좌로 받은 1,5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함

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
- ▣ 피고인 김형준의 양형부당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함(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)
- ▣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

## 3. 판결의 의의

- ▣ 원심의 법리판단 및 사실인정 등을 수긍한 사례임